

2018

서울시민 치매인식도 조사 보고서



연구책임자

이동영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센터장, 교수
-----	--------------------------------	---------

연구원

김선화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사무국장
김지연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연구개발팀	연구원
권상욱	(주) 한국리서치	과장

CONTENTS

제 1 장. 서론	1
I. 연구 필요성	3
II. 연구목적	6
제 2 장. 연구방법	7
I. 연구설계	9
II. 연구도구	10
III. 자료분석	11
제 3 장. 연구결과	13
I. 대상자의 특성	15
II. 치매 관련 특성	17
III. 초로기 치매 관련 실태	33
IV. 치매 인식도	43
제 4 장. 결론 및 제언	45
참고문헌	51
부록1. 설문지	55



■ 요약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서울시민의 치매에 대한 인식 및 관련 실태를 파악하여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의 사업 확대 및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설계: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자치구별) 인구분포를 고려한 확률 비례 추출 방식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본으로 선정된 1,000명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리서치업체를 통한 전화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8.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치매 관심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점이며, 치매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정도는 평균 2.9점이다. 치매 관련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3.8%이며 방송을 통해 접했다(51.9%)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치매와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51.4%이며, 얻고 싶은 정보 유형으로는 치매 예방법이 76.5%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서울시민의 초로기 치매 관련 정보 접촉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6.1%이며, 방송을 통해 접했다(61.3%)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치매와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42.1%이며, 얻고 싶은 정보 유형으로는 초로기 치매의 원인이 72.4%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서울시민의 치매인식도 점수는 12점 만점에 평균 8.70점이며, 문항별 정답률은 평균 72.5%로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치매 위험이 낮아진다’ 92.7% 부터 ‘완치 가능한 치매가 있다’ 24.8% 까지 정답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결론: 서울시민 대상 치매인식도 조사 결과는 2015년 서울시민 대상 치매인식도 조사에서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점수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문항 간 정답률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치매 교육 및 홍보사업에 있어 접근 방식, 콘텐츠 등에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사업 방향을 수립하고, 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도에 따른 맞춤형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01. 서론

I. 연구 필요성

현대사회는 과학의 발전에 힘입은 의료수준의 향상으로 인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고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2015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2.8%를 차지하고 2026년에는 20%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는 2015년 51만명에서 2065년에는 2015년 대비 10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통계청, 2016).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다양한 노인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질환 중 하나가 치매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2014년 9.58%(61만명)에서 2020년 10.39%(84만명), 2050년 15.06%(271만명)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치매 노인의 비중도 2014년 1.2%에서 2050년엔 5.6%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우리나라의 치매환자 수는 2016년 약 69만명으로 추정되며, 향후 17년마다 두 배씩 증가하여 2024년에는 100만, 2041년에는 200만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 발병률은 인구, 1,000명당 연간 7.9명으로 매 12분마다 1명의 새로운 치매환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 2015). 치매 노인의 증가 추세는 서울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서울시 치매 노인 추정인구는 11만명(서울시 노인인구의 9.58%)으로 2020년에는 약 15만 명, 2040년에는 약 33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는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으로 모든 사람에게 발병하는 병은 아니나,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 가능성이 증가되는 만성퇴행성 질병이다. 병이 진행됨에 따라 인지기능과 일상생활 능력이 저하되고(문정희, 2014) 인격이 황폐화되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과 고통, 사회적인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201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근 5년간(2011-2015년) 치매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진료인원은 약 46만명, 총 진료비는 약 1조 6,285억원으로 2011년 대비 진료인원은 연평균 증가율 11.7%, 총 진료비는 17.7%로 각각 증가하였다. 특히 90대 이상은 전체 90대 이상 인구 10명 중 3명 이상이 '치매'로 진료를 받았다.

치매로 인한 부담은 사회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어려움으로도 나타난다. 최근 치매환자의 부양자가 홀로 이러한 부담과 고통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는 사례를 종종 접할 수 있다. 2014년 서울시치매관리사업 등록 치매 노인 관리현황 조사에 따르면, 재가 치매 노인의 주조호자가 느끼는 부양부담감은 평균 40.6점(총점 88점)으로 전체 부양부담감은 보통 수준이었으나, 월평균 가구 소득 대비 치매 노인 부양비용에 대해 51.9%가 “매우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운 편이다”라고 답해 전반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조호자 대부분이 치매 노인을 돌보면서 가사노동을 함께 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치매 노인의 행동심리증상 대처, 일상생활기능 저하로 인한 간호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시된 2014년 전국민 치매인식도 조사에서 중장년층은 암보다 더 두려운 질병이 치매라고 하였고 나이가 많을수록 치매에 대한



두려움과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치매 환자나 가족들 중 절반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중앙치매센터, 2017). 2015년 서울특별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치매 인식도 점수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서울광역치매센터, 2015).

태도는 하고자 하는 행동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식과 더불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치매노인을 돌보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치매에 관한 태도와 인식에 따라 돌봄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나아가 돌봄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장윤정, 2014). 치매 환자의 증가는 의료비의 증가로 이어져 치매로 인한 가족의 부양부담과 사회 경제적 비용 부담이 증가시킨다. 여성의 사회 진출과 핵가족화, 자녀의 부양의식 약화 등으로 가정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부양부담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당한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특히 치매에 따른 고통과 부담은 치매에 대한 잘못된 정보 및 인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현실에서 치매환자의 가족들과 사회구성원들이 치매의 예방, 조기 검진 및 치료 및 관리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면 이와 같은 부담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치매 환자에 대한 부양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에 대한 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했으며, 치매 노인 행동심리증상 대처 방법 및 간호 등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에서 치매노인을 둔 가족들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매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치매를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아 외, 2006). 2012년 치매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치매인식도는 약 64.7점(총점 100점)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전문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9.5%에 불과하였다. 교육 여부에 따른 치매인식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9.62점이고 교육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9.58점으로 교육경험이 있는 사람이 약간 높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치매 교육의 확대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치매 교육의 양적, 질적 확대가 요구된다. 그리고 치매에 대한 지식을 절반 이상이 방송을 통해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전문 지식을 전달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향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환자의 증가는 환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엄청난 부담과 고통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회 전체에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태도 및 인식을 심어주며, 가족 및 그 외의 타인이나 기관으로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치매를 예방할 수 없는 노화의 한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등, 치매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치매의 조기발견과 진단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대응이 미흡한 상태에 있다(김정아 외, 2006). 2014년 전 국민 치매인식도 조사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치매를 무서운 질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으며 50대와 60대에서는 가장 두려운 질환으로 치매를 응답하여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에 반영된 치매에 대한 인식 또한 40% 이상이 비관적이라고 응답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걸친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치매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 중인 서비스(조기검진, 장기요양보험 등)에 대한 정보인식이 매우 낮아 치매와 관련된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홍보하는 노력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치매는 조기발견과 병의 경과에 따른 적절한 관리와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을 통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해야 한다. 따라서 치매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개인과 가족 나아가 지역사회와 정부가 공조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대중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올바른 치매예방과 행동대처를 유도하기 위해서 전문인을 통한 치매관련 지식의 체계적인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이영희 외, 2009).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서울시민의 치매에 대한 관심정도와 정보획득경로, 정보요구도 등을 파악하고 현재 치매 인식수준을 조사하여 올바르게 적절한 치매 교육 및 홍보 전략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더불어 서울시치매관리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서울시민의 치매에 대한 인식 및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인식 및 관련 실태를 파악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의 사업 확대 및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치매에 대한 인식 교육 및 홍보 사업 내용에 반영하여, 서울시민의 치매 인식도를 개선하고 치매를 조기 발견하는 등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세부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치매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치매관련 특성, 치매인식도 및 문항정답률을 비교분석한다.
-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치매관련 특성이 치매인식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02. 연구방법

I.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자치구) 인구분포를 고려한 확률비례 추출방식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본으로 선정된 1,000명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구조화된 도구를 이용하여 (주)한국리서치의 면접원들이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는 2018년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각 질문에 응답을 원하지 않는 경우 무응답처리를 하였다.

<표 1> 조사 설계 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본크기	1,000명 - 표집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표본추출	성/연령/지역별 인구 분포를 고려한 확률 비례 추출
조사방법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CATI: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 숫자의 무작위 조합으로 전화번호를 생성하는 RDD(RandomDigit Dialing) 방식을 활용하여 전화를 걸고, 면접원이 컴퓨터로 프로그래밍된 설문을 통해 응답을 받아 내용을 기입하는 형태의 조사 방법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기간	2018년 7월 17일 ~ 7월 23일



II. 연구도구

1) 치매에 대한 관심 및 정보요구도

치매에 대한 관심 및 정보요구도는 치매에 대한 관심 2문항, 치매 정보 접촉 2문항, 치매 정보요구도 2문항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치매에 대한 관심은 관심의 정도와 주관적인 인식수준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치매 정보 접촉은 접촉경험여부와 습득 경로, 치매 정보요구도는 요구여부와 얻고자 하는 정보 유형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 습득 경로와 정보 유형에 관한 문항은 복수선택형 문항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2) 초로기 치매에 대한 관심 및 정보요구도

초로기 치매에 대한 관심 및 정보요구도는 초로기 치매에 대한 관심 2문항, 초로기 치매 정보 접촉 2문항, 초로기 치매 정보요구도 2문항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로기 치매에 대한 관심은 관심의 정도와 주관적인 인식수준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초로기 치매 정보 접촉은 접촉경험여부와 습득 경로, 초로기 치매 정보요구도는 요구여부와 얻고자 하는 정보 유형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 습득 경로와 정보 유형에 관한 문항은 복수선택형 문항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3) 치매 인식도

치매 인식도 측정도구는 해당분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치매전공 정신과 교수 4명과 노인간호학 전공 교수 1인에게 내용타당도 검정을 받고, 검증된 도구를 50명의 대상자들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수정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 항목은 질병에 관한 지식 5문항, 증상에 관한 지식 3문항, 치료에 관한 지식 2문항, 간호에 관한 지식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치매인식수준을 묻는 문항은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하여 전체 점수의 범위는 0~12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Ⅲ.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8.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구학적 특성별 치매관련 특성, 치매인식도 및 문항정답률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카이검정, t-test, ANOVA, 비모수검정(Mann-Whitney U검증)을 이용하였다.
- 인구학적 특성별 초로기 치매관련 특성, 초로기 치매인식도 및 문항정답률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카이검정, t-test, ANOVA, 비모수검정(Mann-Whitney U검증)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치매 관련 특성이 치매인식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03. 연구결과

I . 대상자의 특성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총 1,000명이며,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에 따라 비례 추출한 표본이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먼저 성별 분포를 보면 여자가 515명(51.5%)으로 남자 435명(48.5%)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45명(24.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40대(196명, 19.6%), 30대와 30대 이하(188명, 18.8%), 50대(183명, 18.3%)의 순이다. 학력별로는 대학교 졸업 이상이 596명(59.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266명, 26.6%), 중학교 졸업 이하(123명, 12.3%)이다.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사무직이 41.2%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주부/은퇴/무직/기타 37.0%, 서비스/생산/기능/노무직 21.4%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인 26.3%,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인 25.3%, 200만원 미만 16.5%, 600만원 이상 13.9% 순이며,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는 응답자는 전체 1,000명 중 121명(12.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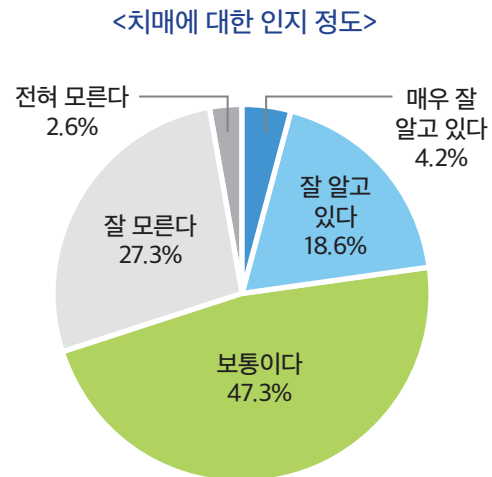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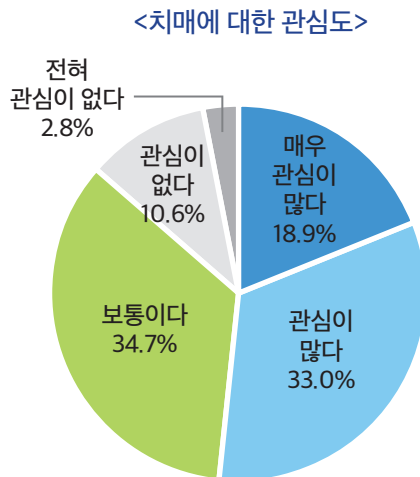
<표 2>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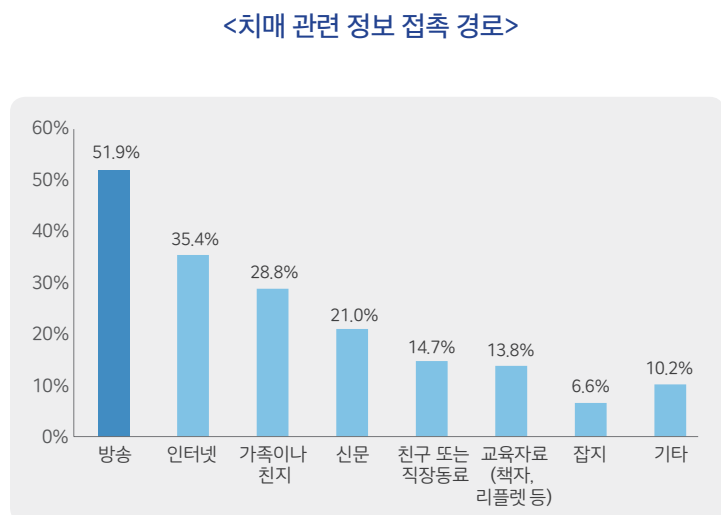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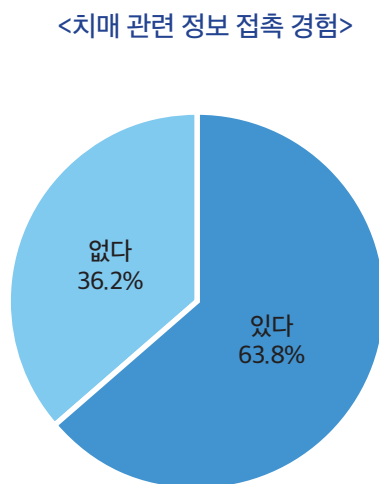
구분	n (명)	%
전체	1,000	100.0
성별		
남자	485	48.5
여자	515	51.5
연령		
19-29세	188	18.8
30대	188	18.8
40대	196	19.6
50대	183	18.3
60세 이상	245	24.5
혼인상태		
미혼	315	31.5
유배우	622	62.2
이혼/별거/사별	62	6.2
모름/무응답	1	0.1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23	12.3
고등학교 졸업	266	26.6
대학교 졸업 이상	596	59.6
모름/무응답	15	1.5
직업		
관리/전문/사무직	412	41.2
서비스/생산/기능/노무직	214	21.4
학생/주부/은퇴/무직/기타	370	37.0
모름/무응답	4	0.4
월 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65	16.5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68	26.8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253	25.3
600만원 이상	189	18.9
모름/무응답	125	12.5
가족 중 치매 환자		
있다	121	12.1
없다	879	87.9

II. 치매 관련 특성

- 치매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매우 관심이 많다+관심이 많다)'이라는 응답 비율은 51.9%임.
- 치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편(매우 잘 알고 있다+잘 알고 있다)'이라는 응답 비율은 22.8%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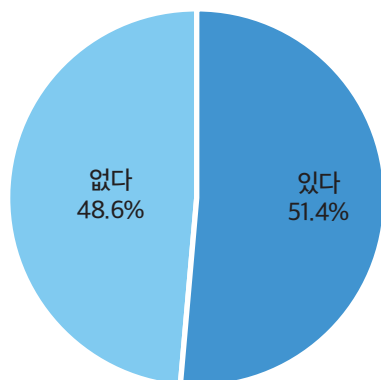
- 치매에 관한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 비율은 63.8%임.
- 이 중, 정보를 접한 경로로 '방송'을 꼽은 응답자의 비율이 51.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35.4%)', '가족이나 친지(28.8%)', '신문(21.0%)'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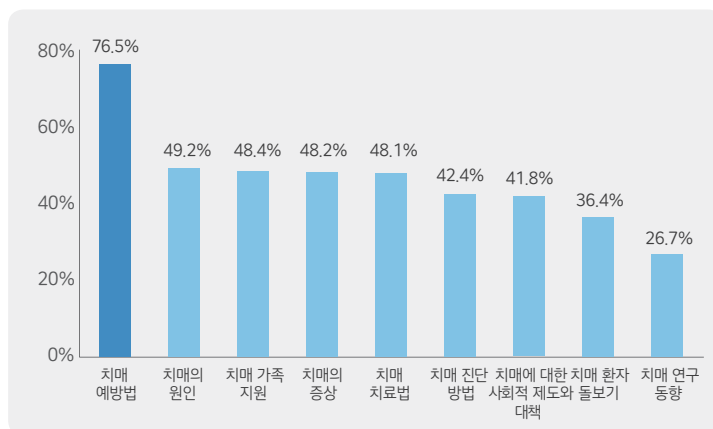


- 치매에 관해 얻고 싶은 정보가 '있다'라는 응답 비율은 51.4%임.
- 이 중, 얻고 싶은 정보로 '치매 예방법'을 꼽은 응답자의 비율이 76.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치매의 원인(49.2%)', '치매 가족 지원(48.4%)', '치매의 증상(48.2%)'등의 순임.

<치매에 관해 얻고 싶은 정보 유무>



<치매에 관해 얻고 싶은 정보>



1. 대상자의 치매관련 특성

대상자의 치매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치매에 대한 관심 정도는 ‘보통이다’가 34.7%로 가장 많았고, ‘관심이 많다’33.0%, ‘매우 관심 이 많다’18.9%, ‘관심이 없다’10.6%, ‘전혀 관심이 없다’2.8%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3.5점(5 점 만점)이었다.

치매에 대한 인지 정도는 ‘보통이다’47.3%, ‘잘 모른다’27.3%, ‘잘 알고 있다’18.6%, ‘매우 잘 알고 있다’4.2%, ‘전혀 모른다’2.6%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2.9점(5점 만점)이었다.

치매관련 정보 접촉 경험 여부는 접촉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3.8%, 없다는 응답이 36.2%로 절반 이상이 치매정보를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를 습득한 주경로는 방송이 51.9%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 35.4%, 가족이나 친지 28.8%, 신문 21.0%, 친구 또는 직장동료

14.7%, 교육자료(책자, 리플렛 등) 13.8%, 잡지 6.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보건소, 병원 등 보건시설과 구청, 주민센터, 복지관, 건강보험공단 등 행정 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 관련 전문 기관이 있었다.

치매와 관련하여 얻고 싶은 정보가 있는지에 대한 문항은 얻고 싶은 정보가 있다는 응답이 51.4%, 없다는 응답이 48.6%로 나타났다. 얻고 싶은 정보 유형으로는 ‘치매 예방법’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이 76.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치매의 원인(49.2%), 치매 가족지원(48.4%), 치매의 증상 (48.2%), 치매 치료법(48.1%), 치매 진단 방법(42.4%), 치매 환자에 대한 사회적 제도 및 대책(41.8%), 치매 환자 돌보기 (36.4%), 치매 연구 동향(26.7%) 등의 순이다.



<표 3> 대상자의 치매 관련 특성

구분		사례수 (명)	비율
치매에 대한 관심도	매우 관심이 많다	189	18.9
	관심이 많다	330	33.0
	보통이다	347	34.7
	관심이 없다	106	10.6
	전혀 관심이 없다	28	2.8
치매에 대한 인지 정도	매우 잘 알고 있다	42	4.2
	잘 알고 있다	186	18.6
	보통이다	473	47.3
	잘 모른다	273	27.3
	전혀 모른다	26	2.6
치매 관련 정보 접촉 경험	있다	638	63.8
	없다	362	36.2
치매 관련 정보 접촉 경로*	신문	134	21.0
	방송	331	51.9
	인터넷	226	35.4
	잡지	42	6.6
	교육자료(책자, 리플렛 등)	88	13.8
	가족이나 친지	184	28.8
	친구 또는 직장동료	94	14.7
	기타	65	10.2
치매에 관해 얻고 싶은 정보	있다	514	51.4
	없다	486	48.6
치매에 관해 얻고 싶은 정보*	치매의 원인	253	49.2
	치매의 증상	248	48.2
	치매 예방법	393	76.5
	치매 진단 방법	218	42.4
	치매 치료법	247	48.1
	치매 연구 동향	137	26.7
	치매에 대한 사회적 제도와 대책	215	41.8
	치매 환자 돌보기	187	36.4
	치매 가족 지원	249	48.4

* 복수응답

2. 치매 관심 및 정보 요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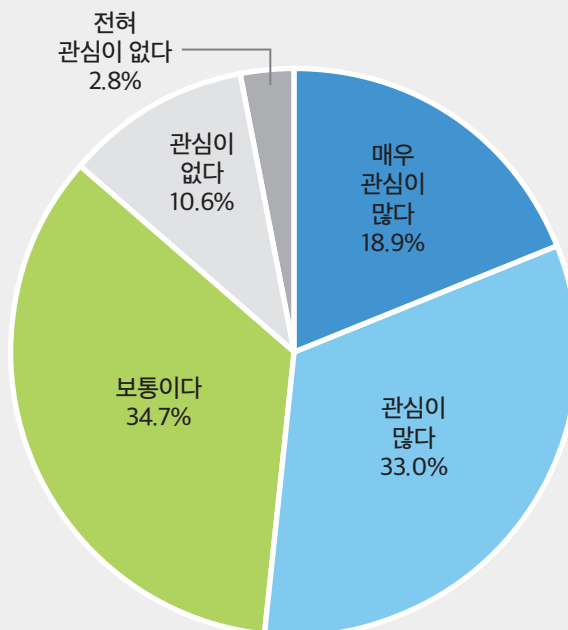
1) 치매에 대한 관심도

문1] 귀하께서는 치매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 치매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편이다(매우 관심이 많다+관심이 많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전체의 51.9%이며, ‘관심이 없는 편이다(전혀 관심이 없다+관심이 없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13.4%임.

<그림 1> 치매에 대한 관심도

(n=1,000)





응답자 특성별

→ 치매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54.4%로 남성(49.3%)보다 높고, 연령별로는 50대(69.4%)와 60대 이상(61.6%),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59.6%), 학력별로는 중학교 졸업 이하(55.3%), 직업별로는 서비스/생산/기능/노무직(57.0%),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58.9%),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는 경우(82.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4> 치매에 대한 관심도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매우 관심이 많다	관심이 많다	①+②	보통 이다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	④+⑤	계	평균 (점)
전체	(1,000)	18.9	33.0	51.9	34.7	10.6	2.8	13.4	100.0	3.5
성별										
남성	(485)	16.1	33.2	49.3	34.0	12.2	4.5	16.7	100.0	3.4
여성	(515)	21.6	32.8	54.4	35.3	9.1	1.2	10.3	100.0	3.6
연령										
19-29세	(188)	3.7	22.9	26.6	45.7	20.7	6.9	27.7	100.0	3.0
30대	(188)	16.0	25.5	41.5	48.4	8.0	2.1	10.1	100.0	3.5
40대	(196)	18.9	38.8	57.7	33.2	8.2	1.0	9.2	100.0	3.7
50대	(183)	27.3	42.1	69.4	23.0	6.0	1.6	7.7	100.0	3.9
60세 이상	(245)	26.5	35.1	61.6	25.7	10.2	2.4	12.7	100.0	3.7
혼인상태										
미혼	(315)	11.7	23.5	35.2	44.1	15.6	5.1	20.6	100.0	3.2
유배우	(622)	22.2	37.5	59.6	30.7	8.0	1.6	9.6	100.0	3.7
이혼/별거/사별	(62)	22.6	35.5	58.1	27.4	11.3	3.2	14.5	100.0	3.6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4.0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23)	23.6	31.7	55.3	26.0	15.4	3.3	18.7	100.0	3.6
고등학교 졸업	(266)	18.0	32.0	50.0	35.7	9.4	4.9	14.3	100.0	3.5
대학교 졸업 이상	(596)	18.5	33.7	52.2	36.1	10.2	1.5	11.7	100.0	3.6
모름/무응답	(15)	13.3	33.3	46.7	33.3	6.7	13.3	20.0	100.0	3.3
직업										
관리/전문/사무직	(412)	16.0	33.5	49.5	37.6	10.4	2.4	12.9	100.0	3.5
서비스/생산/기능/노무직	(214)	24.3	32.7	57.0	29.0	11.7	2.3	14.0	100.0	3.6
학생/주부/은퇴/무직/기타	(370)	19.2	32.7	51.9	34.3	10.3	3.5	13.8	100.0	3.5
모름/무응답	(4)	0.0	25.0	25.0	75.0	0.0	0.0	0.0	100.0	3.3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65)	21.2	30.9	52.1	30.3	14.5	3.0	17.6	100.0	3.5
200만원-400만원	(268)	16.4	36.2	52.6	35.8	9.0	2.6	11.6	100.0	3.5
400만원-600만원	(253)	20.6	38.3	58.9	29.2	9.1	2.8	11.9	100.0	3.6
600만원 이상	(189)	20.1	32.3	52.4	37.0	10.1	0.5	10.6	100.0	3.6
모름/무응답	(125)	16.0	19.2	35.2	45.6	12.8	6.4	19.2	100.0	3.3
가족 중 치매 환자										
있다	(121)	42.1	40.5	82.6	13.2	3.3	0.8	4.1	100.0	4.2
없다	(879)	15.7	32.0	47.7	37.7	11.6	3.1	14.7	100.0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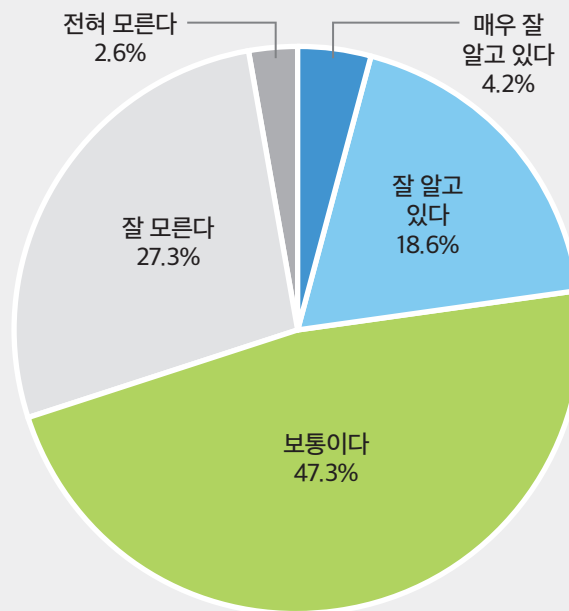
2) 치매에 대한 인지 정도

문2] 귀하께서는 치매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치매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편이다(매우 잘 알고 있다+잘 알고 있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전체의 22.8%이며, ‘잘 모르는 편이다(전혀 모른다+잘 모른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29.9%임.

<그림 2> 치매에 대한 인지 정도

(n=1,000)





응답자 특성별

→ 치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대(36.1%)와 60세 이상(31.0%) 연령대에서 높고, 혼인 상태별로는 이혼/별거/사별(35.5%),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는 경우(43.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5> 치매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①+②	보통 이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④+⑤	계	평균 (점)
전체	(1,000)	4.2	18.6	22.8	47.3	27.3	2.6	29.9	100.0	2.9
성별										
남성	(485)	4.7	17.7	22.5	44.7	29.5	3.3	32.8	100.0	2.9
여성	(515)	3.7	19.4	23.1	49.7	25.2	1.9	27.2	100.0	3.0
연령										
19-29세	(188)	2.1	8.5	10.6	36.7	46.8	5.9	52.7	100.0	2.5
30대	(188)	2.7	10.1	12.8	51.1	33.0	3.2	36.2	100.0	2.8
40대	(196)	4.1	17.3	21.4	55.1	21.9	1.5	23.5	100.0	3.0
50대	(183)	9.3	26.8	36.1	44.8	18.6	0.5	19.1	100.0	3.3
60세 이상	(245)	3.3	27.8	31.0	48.2	18.8	2.0	20.8	100.0	3.1
혼인상태										
미혼	(315)	2.9	11.1	14.0	41.0	41.0	4.1	45.1	100.0	2.7
유배우	(622)	4.8	21.2	26.0	51.0	21.5	1.4	23.0	100.0	3.1
이혼/별거/사별	(62)	4.8	30.6	35.5	41.9	16.1	6.5	22.6	100.0	3.1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3.0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23)	2.4	24.4	26.8	42.3	26.8	4.1	30.9	100.0	2.9
고등학교 졸업	(266)	5.6	16.5	22.2	44.4	31.2	2.3	33.5	100.0	2.9
대학교 졸업 이상	(596)	4.0	18.1	22.1	50.0	25.7	2.2	27.9	100.0	3.0
모름/무응답	(15)	0.0	26.7	26.7	33.3	26.7	13.3	40.0	100.0	2.7
직업										
관리/전문/사무직	(412)	3.6	18.2	21.8	48.1	27.4	2.7	30.1	100.0	2.9
서비스/생산/기능/노무직	(214)	5.1	19.6	24.8	45.3	28.0	1.9	29.9	100.0	3.0
학생/주부/은퇴/무직/기타	(370)	4.3	18.4	22.7	47.8	26.5	3.0	29.5	100.0	2.9
모름/무응답	(4)	0.0	25.0	25.0	25.0	50.0	0.0	50.0	100.0	2.8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65)	3.6	18.2	21.8	47.3	27.3	3.6	30.9	100.0	2.9
200만원-400만원	(268)	3.7	21.3	25.0	46.6	26.1	2.2	28.4	100.0	3.0
400만원-600만원	(253)	2.8	21.3	24.1	51.4	22.5	2.0	24.5	100.0	3.0
600만원 이상	(189)	7.4	18.0	25.4	47.6	25.4	1.6	27.0	100.0	3.0
모름/무응답	(125)	4.0	8.8	12.8	40.0	42.4	4.8	47.2	100.0	2.6
가족 중 치매 환자										
있다	(121)	11.6	31.4	43.0	45.5	10.7	0.8	11.6	100.0	3.4
없다	(879)	3.2	16.8	20.0	47.6	29.6	2.8	32.4	100.0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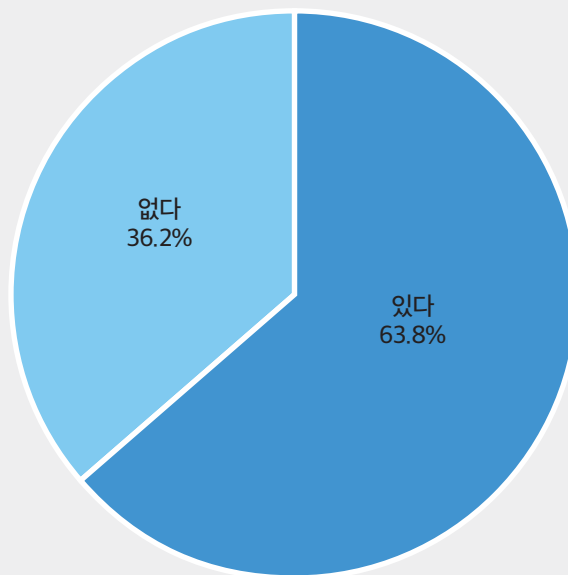
3) 치매 관련 정보 접촉 경험

문3] 귀하께서는 치매와 관련한 정보를 접한 적이 있습니까?

- 치매 관련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전체의 63.8%이며, '없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36.2%임.

<그림 3> 치매 관련 정보 접촉 경험

(n=1,000)





응답자 특성별

- 치매 관련 정보 접촉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60세 이상(69.8%) 연령대에서 높고,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67.2%),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는 경우(82.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치매에 관한 정보를 접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음.

<표 6> 치매 관련 정보 접촉 경험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1,000)	63.8	36.2	100.0
성별				
남성	(485)	61.6	38.4	100.0
여성	(515)	65.8	34.2	100.0
연령				
19-29세	(188)	52.7	47.3	100.0
30대	(188)	58.5	41.5	100.0
40대	(196)	68.4	31.6	100.0
50대	(183)	67.8	32.2	100.0
60세 이상	(245)	69.8	30.2	100.0
혼인상태				
미혼	(315)	57.1	42.9	100.0
유배우	(622)	67.2	32.8	100.0
이혼/별거/사별	(62)	64.5	35.5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23)	55.3	44.7	100.0
고등학교 졸업	(266)	62.0	38.0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596)	67.1	32.9	100.0
모름/무응답	(15)	33.3	66.7	100.0
직업				
관리/전문/사무직	(412)	65.8	34.2	100.0
서비스/생산/기능/노무직	(214)	61.2	38.8	100.0
학생/주부/은퇴/무직/기타	(370)	63.5	36.5	100.0
모름/무응답	(4)	25.0	75.0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65)	60.0	40.0	100.0
200만원-400만원	(268)	60.4	39.6	100.0
400만원-600만원	(253)	70.4	29.6	100.0
600만원 이상	(189)	70.4	29.6	100.0
모름/무응답	(125)	52.8	47.2	100.0
가족 중 치매 환자				
있다	(121)	82.6	17.4	100.0
없다	(879)	61.2	38.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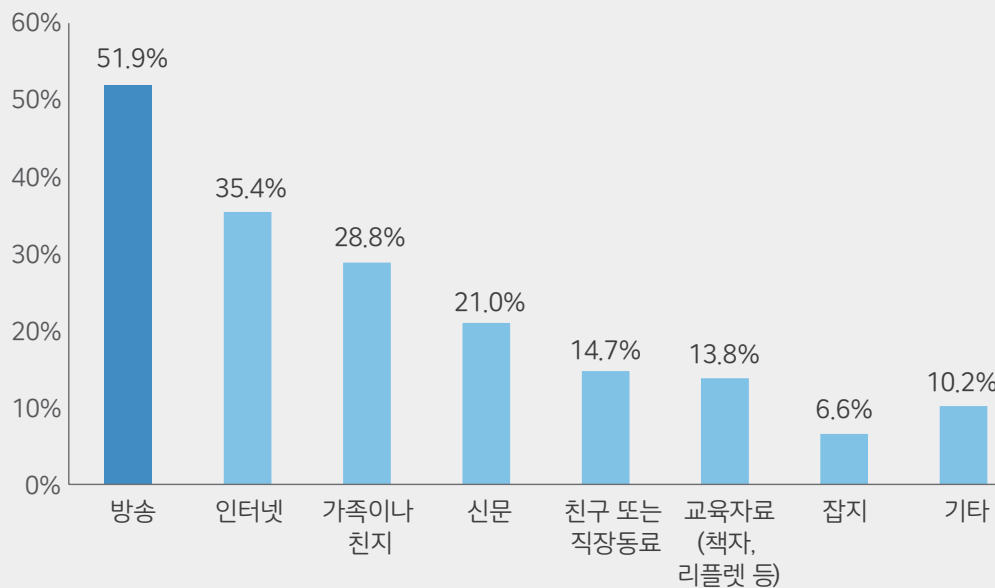
4) 치매 관련 정보 접촉 경험

문3-1] 접하신 적이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입니까?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 치매 관련 정보 접촉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그 정보를 접한 경로로 '방송'을 꼽은 답자의 비율이 51.9%로 가장 높음. 그 다음으로 '인터넷(35.4%)', '가족이나 친지(28.8%)', '신문(21.0%)' 등의 순임.
- 기타 의견으로는 보건소, 병원 등 보건 시설과 구청, 주민센터, 복지관, 건강보험공단 등 행정 기관, 치매센터 등 치매 관련 전문 기관이 있음.

<그림 4> 치매 관련 정보 접촉 경로(복수응답)

(n=638)





응답자 특성별

- 방송을 통해 치매 관련 정보를 접했다는 응답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고,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57.3%),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없는 경우(%)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정보 접촉 경로가 인터넷이라는 응답 비율은 50세 미만 연령대(19-29세 49.5%, 30대 46.4%, 40대 48.5%)에서 높고, 미혼(46.1%), 대학교 졸업 이상(46.8%), 관리/전문/사무직(50.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가족이나 친지를 통해 정보를 접했다는 응답 비율은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높고, 50대(38.7%), 대학교 졸업 이상(40.0%),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는 경우(59.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7> 치매 관련 정보 접촉 경로(복수응답)

(단위 : %)

Base=치매 관련 정보 접촉 경험자	사례수 (명)	방송	인터넷	가족이나 친지	신문	친구 또는 직장동료	교육자료 (책자, 리플렛등)	잡지	기타
전체	(638)	51.9	35.4	28.8	21.0	14.7	13.8	6.6	10.2
성별									
남성	(299)	50.5	41.1	28.1	23.1	16.7	11.4	8.0	7.0
여성	(339)	53.1	30.4	29.5	19.2	13.0	15.9	5.3	13.0
연령									
19-29세	(99)	44.4	49.5	32.3	18.2	13.1	13.1	7.1	4.0
30대	(110)	57.3	46.4	28.2	23.6	16.4	12.7	7.3	3.6
40대	(134)	52.2	48.5	24.6	21.6	11.9	10.4	7.5	2.2
50대	(124)	55.6	31.5	38.7	22.6	16.9	12.9	6.5	4.8
60세 이상	(171)	49.7	12.9	23.4	19.3	15.2	18.1	5.3	28.1
혼인상태									
미혼	(180)	52.8	46.1	31.1	21.1	13.9	13.3	8.3	3.3
유배우	(418)	52.6	33.3	28.9	21.1	14.6	13.6	6.0	11.5
이혼/별거/사별	(40)	40.0	10.0	17.5	20.0	20.0	17.5	5.0	27.5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68)	41.2	0.0	17.6	2.9	11.8	19.1	1.5	38.2
고등학교 졸업	(165)	50.9	23.0	32.7	18.8	13.9	11.5	3.6	8.5
대학교 졸업 이상	(400)	54.0	46.8	29.0	25.0	15.3	13.8	8.8	6.0
대학교 졸업 이상	(5)	60.0	20.0	40.0	20.0	40.0	20.0	0.0	20.0
직업									
관리/전문/사무직	(271)	53.9	50.6	26.2	24.0	16.2	14.0	8.5	4.4
서비스/생산/기능/ 노무직	(131)	51.9	25.2	35.1	19.1	14.5	12.2	6.1	6.1
학생/주부/은퇴/무직/ 기타	(235)	49.4	23.4	28.1	18.7	13.2	14.5	4.7	19.1
모름/무응답	(1)	100.0	100.0	100.0	0.0	0.0	0.0	0.0	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99)	51.5	13.1	25.3	15.2	11.1	15.2	3.0	25.3
200만원-400만원	(162)	53.1	28.4	25.9	20.4	11.1	11.1	4.3	9.9
400만원-600만원	(178)	57.3	47.8	28.7	25.3	17.4	14.6	9.6	7.3
600만원 이상	(133)	48.9	45.9	30.8	20.3	16.5	15.0	7.5	5.3
모름/무응답	(66)	40.9	31.8	37.9	21.2	18.2	13.6	7.6	6.1
가족 중 치매 환자									
있다	(100)	32.0	30.0	59.0	13.0	20.0	16.0	6.0	12.0
없다	(538)	55.6	36.4	23.2	22.5	13.8	13.4	6.7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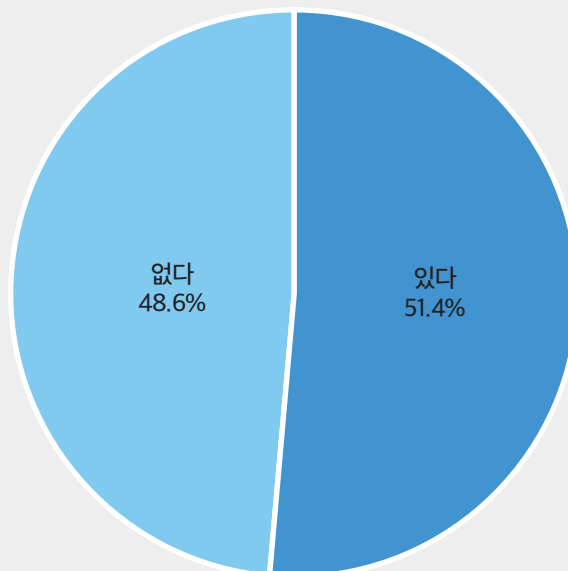
5) 치매에 관해 얻고 싶은 정보 유무

문4] 귀하께서는 치매에 관해 얻고 싶은 정보가 있습니까?

- 치매에 관해 얻고 싶은 정보가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전체의 51.4%이며, ‘없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48.6%임.

<그림 5> 치매에 관해 얻고 싶은 정보 유무

(n=1,000)





응답자 특성별

- 치매에 관해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는 응답 비율은 여성이 55.5%로 남성(47.0%)보다 높고, 연령별로는 50대(59.0%),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54.8%), 학력별로는 대학교 졸업 이상(56.2%),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사무직(56.1%),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는 경우(66.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은 편일수록(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60.9%, 600만원 이상 60.3%) 치매에 관해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음.

<표 8> 치매에 관해 알고 싶은 정보 유무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1,000)	51.4	48.6	100.0
성별				
남성	(485)	47.0	53.0	100.0
여성	(515)	55.5	44.5	100.0
연령				
19-29세	(188)	39.4	60.6	100.0
30대	(188)	58.0	42.0	100.0
40대	(196)	57.7	42.3	100.0
50대	(183)	59.0	41.0	100.0
60세 이상	(245)	44.9	55.1	100.0
혼인상태				
미혼	(315)	45.4	54.6	100.0
유배우	(622)	54.8	45.2	100.0
이혼/별거/사별	(62)	48.4	51.6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23)	47.2	52.8	100.0
고등학교 졸업	(266)	44.7	55.3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596)	56.2	43.8	100.0
모름/무응답	(15)	13.3	86.7	100.0
직업				
관리/전문/사무직	(412)	56.1	43.9	100.0
서비스/생산/기능/노무직	(214)	52.3	47.7	100.0
학생/주부/은퇴/무직/기타	(370)	45.9	54.1	100.0
모름/무응답	(4)	25.0	75.0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65)	43.0	57.0	100.0
200만원-400만원	(268)	50.7	49.3	100.0
400만원-600만원	(253)	60.9	39.1	100.0
600만원 이상	(189)	60.3	39.7	100.0
모름/무응답	(125)	31.2	68.8	100.0
가족 중 치매 환자				
있다	(121)	66.1	33.9	100.0
없다	(879)	49.4	50.6	100.0

6) 치매에 관해 알고 싶은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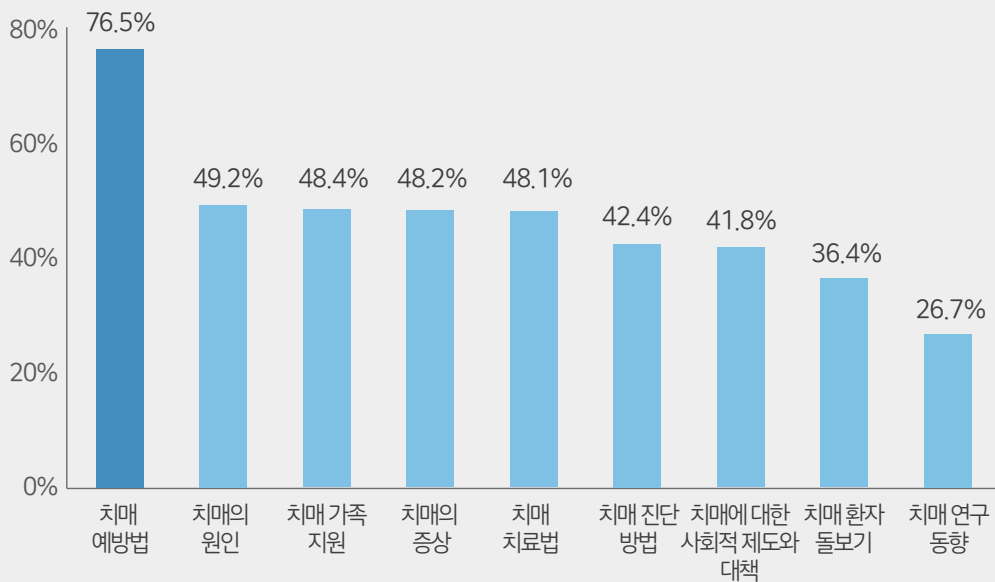
문4-1]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 치매에 관해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는 응답자 중, 알고 싶은 정보로 ‘치매 예방법’을 꼽은 응답자의 비율이 76.5%로 가장 높음. 그 다음으로는 ‘치매의 원인(49.2%)’, 치매 가족 지원(48.4%), 치매의 증상(48.2%) 등의 순임.

<그림 6> 치매에 관해 알고 싶은 정보(복수응답)

(n=514)





응답자 특성별

- 치매에 관해 알고 싶은 정보가 치매 예방법이라는 응답 비율은 30대(84.4%) 연령대에서 높고, 직업별로는 학생/주부/은퇴/무직/기타(80.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치매의 원인, 치매 가족 지원, 치매의 증상, 치매 치료법, 치매 진단 방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경향이 있음.

<표 9> 치매에 관해 알고 싶은 정보(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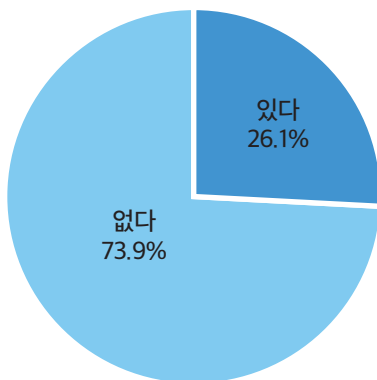
(단위 : %)

Base=치매 관련 정보 습득 희망자	사례수 (명)	치매 예방법	치매의 원인	치매 가족 지원	치매의 증상	치매 치료법	치매 진단 방법	치매에 대한 사회적 제도와 대책	치매 환자 돌보기	치매 연구 동향
전체	(514)	76.5	49.2	48.4	48.2	48.1	42.4	41.8	36.4	26.7
성별										
남성	(228)	75.0	50.4	45.2	52.2	46.5	41.2	41.7	36.8	27.2
여성	(286)	77.6	48.3	51.0	45.1	49.3	43.4	42.0	36.0	26.2
연령										
19-29세	(74)	73.0	40.5	41.9	41.9	40.5	32.4	35.1	25.7	18.9
30대	(109)	84.4	56.0	56.0	52.3	61.5	47.7	54.1	40.4	35.8
40대	(113)	69.0	47.8	57.5	47.8	45.1	46.9	43.4	41.6	28.3
50대	(108)	75.9	53.7	56.5	57.4	51.9	49.1	48.1	44.4	32.4
60세 이상	(110)	79.1	45.5	28.2	40.0	39.1	32.7	26.4	26.4	15.5
혼인상태										
미혼	(143)	76.9	44.1	49.7	45.5	46.2	39.2	44.1	33.6	26.6
유배우	(341)	76.5	51.9	49.3	50.4	49.0	44.3	41.6	38.1	27.0
이혼/별거/사별	(30)	73.3	43.3	33.3	36.7	46.7	36.7	33.3	30.0	23.3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58)	72.4	44.8	32.8	44.8	44.8	36.2	25.9	25.9	17.2
고등학교 졸업	(119)	77.3	47.9	44.5	48.7	47.1	42.0	40.3	32.8	26.1
대학교 졸업 이상	(335)	76.7	50.1	52.2	48.4	48.7	43.3	44.8	39.1	28.4
모름/무응답	(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0.0
직업										
관리/전문/사무직	(231)	74.9	51.1	55.0	48.5	50.6	42.9	46.3	39.8	29.9
서비스/생산/기능/ 노무직	(112)	74.1	54.5	50.9	50.9	53.6	48.2	50.9	42.9	27.7
학생/주부/은퇴/무직/ 기타	(170)	80.6	42.9	38.2	46.5	40.6	38.2	29.4	27.6	21.8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100.0	0.0	100.0	0.0	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71)	78.9	42.3	33.8	40.8	42.3	35.2	28.2	29.6	18.3
200만원-400만원	(136)	77.9	41.9	44.1	41.9	44.1	39.0	44.1	28.7	22.8
400만원-600만원	(154)	77.9	51.9	51.9	49.4	50.0	42.9	41.6	39.6	31.2
600만원 이상	(114)	73.7	55.3	58.8	56.1	54.4	49.1	50.9	46.5	30.7
모름/무응답	(39)	69.2	59.0	46.2	56.4	46.2	46.2	33.3	33.3	25.6
가족 중 치매 환자										
있다	(80)	70.0	40.0	51.3	43.8	48.8	41.3	50.0	46.3	30.0
없다	(434)	77.6	50.9	47.9	49.1	47.9	42.6	40.3	34.6	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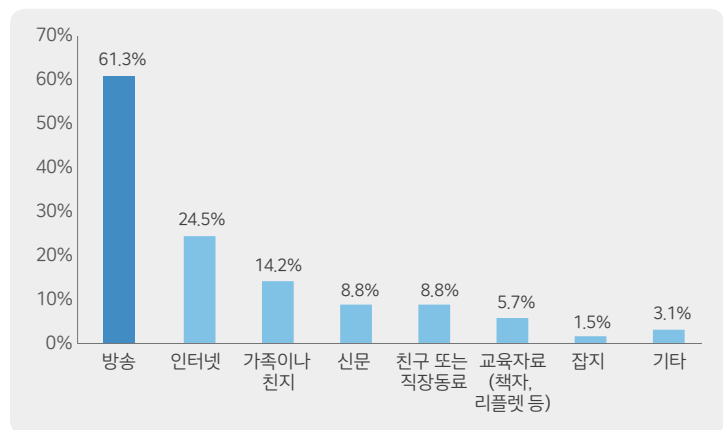
Ⅲ. 초로기 치매 관련 실태

- 초로기 치매에 관한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 비율은 26.1%임.
- 이 중, 정보를 접한 경로로 '방송'을 꼽은 응답자의 비율이 61.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인터넷(24.5%)', '신문(14.2%)'등의 순임.

<초로기 치매 관련 정보 접촉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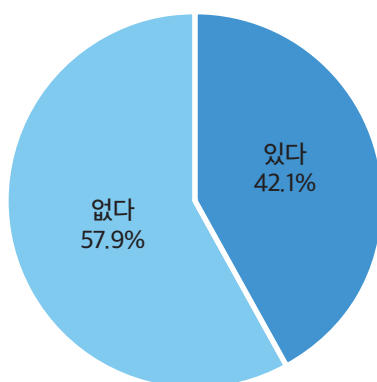


<초로기 치매 관련 정보 접촉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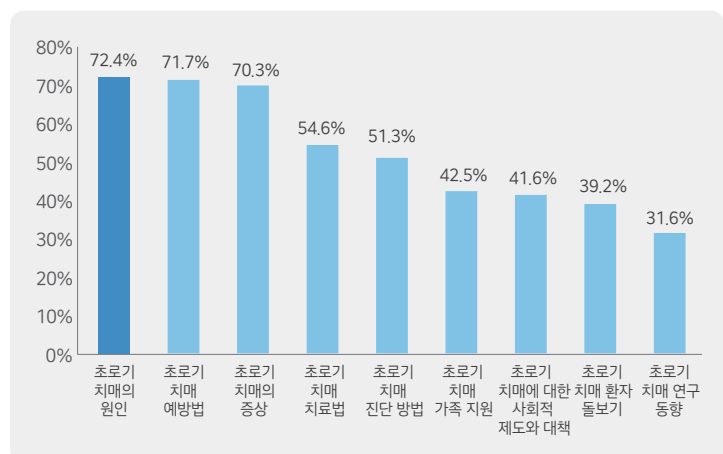


- 초로기 치매에 관해 얻고 싶은 정보가 '있다'라는 응답 비율은 42.1%임.
- 이 중, 얻고 싶은 정보로 '초로기 치매의 원인'을 꼽은 응답자의 비율이 72.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초로기 치매 예방법(71.7%)', '초로기 치매의 증상(70.3%)', '초로기 치매 치료법(54.6%)'등의 순임.

<초로기 치매에 관해 얻고 싶은 정보 유무>



<초로기 치매에 관해 얻고 싶은 정보>





1. 대상자의 초로기 치매관련 특성

대상자의 초로기 치매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초로기 치매관련 정보 접촉 경험 여부는 접촉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6.1%, 없다는 응답이 73.9%로 절반 이상이 초로기 치매정보를 접촉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를 습득한 주 경로는 방송이 61.3%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 24.5%, 신문 14.2%, 교육자료(책자, 리플렛)와 친구 또는 직장동료가 각각 8.8%, 가족이나 친지 12.9%, 잡지 1.5% 순으로 나타났다.

초로기 치매와 관련하여 얻고 싶은 정보가 있는지에 대한 문항은 얻고 싶은 정보가 있다는 응답이 42.1%, 없다는 응답이 57.9%로 나타났다. 얻고 싶은 정보 유형으로는 ‘초로기 치매의 원인’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이 72.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초로기 치매 예방법(71.7%), 초로기 치매의 증상 (70.3%), 초로기 치매 치료법(54.6%), 초로기 치매 진단 방법(51.3%), 초로기 치매 가족 지원(42.5%), 초로기 치매에 대한 사회적 제도와 대책(41.6%), 초로기 치매 환자 돌보기(39.2%), 초로기 치매 연구 동향(31.6%) 등의 순이다.

<표 10> 대상자의 초로기 치매 관련 특성

구분		사례수 (명)	비율
초로기 치매 관련 정보 접촉 경험	있다	261	26.1
	없다	739	73.9
초로기 치매 관련 정보 접촉 경로*	신문	37	14.2
	방송	160	61.3
	인터넷	64	24.5
	잡지	4	1.5
	교육자료(책자, 리플렛 등)	23	8.8
	가족이나 친지	15	5.7
	친구 또는 직장동료	23	8.8
	기타	8	3.1
초로기 치매에 관해 얻고 싶은 정보 유무	있다	421	42.1
	없다	579	57.9
초로기 치매에 관해 얻고 싶은 정보*	초로기 치매의 원인	305	72.4
	초로기 치매의 증상	296	70.3
	초로기 치매 예방법	302	71.7
	초로기 치매 진단 방법	216	51.3
	초로기 치매 치료법	230	54.6
	초로기 치매 연구 동향	133	31.6
	초로기 치매에 대한 사회적 제도와 대책	175	41.6
	초로기 치매 환자 돌보기	165	39.2
	초로기 치매 가족 지원	179	42.5

* 복수응답

2. 초로기 치매 관심 및 정보 요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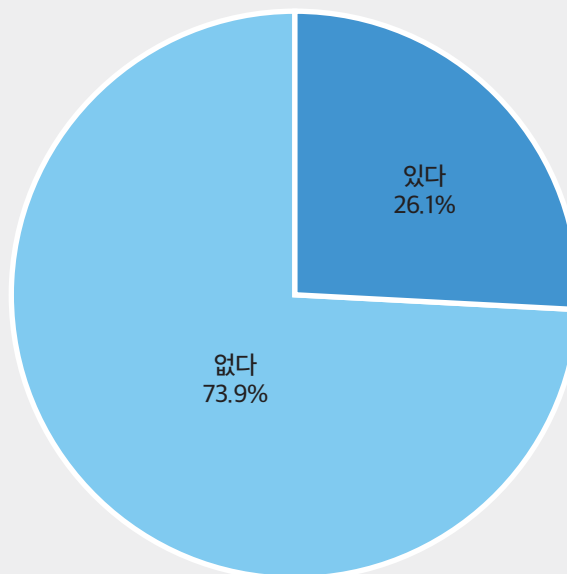
1) 초로기 치매 관련 정보 접촉 경험

문5] 귀하께서는 65세 이하 성인이 걸리는 초로기 치매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초로기 치매 관련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전체의 26.1%이며, '없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73.9%임.

<그림 7> 초로기 치매 관련 정보 접촉 경험

(n=1,000)





응답자 특성별

- 초로기 치매 관련 정보 접촉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여성이 31.3%로 남성(20.6%)보다 높고,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29.9%),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는 경우(40.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대별로는 40대(34.2%)와 50대(35.0%)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초로기 치매 관련 정보 접촉 경험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음.

<표 11> 초로기 치매 관련 정보 접촉 경험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1,000)	26.1	73.9	100.0
성별				
남성	(485)	20.6	79.4	100.0
여성	(515)	31.3	68.7	100.0
연령				
19-29세	(188)	16.0	84.0	100.0
30대	(188)	20.7	79.3	100.0
40대	(196)	34.2	65.8	100.0
50대	(183)	35.0	65.0	100.0
60세 이상	(245)	24.9	75.1	100.0
혼인상태				
미혼	(315)	20.0	80.0	100.0
유배우	(622)	29.9	70.1	100.0
이혼/별거/사별	(62)	19.4	80.6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23)	17.9	82.1	100.0
고등학교 졸업	(266)	30.8	69.2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596)	26.2	73.8	100.0
모름/무응답	(15)	6.7	93.3	100.0
직업				
관리/전문/사무직	(412)	25.2	74.8	100.0
서비스/생산/기능/노무직	(214)	27.1	72.9	100.0
학생/주부/은퇴/무직/기타	(370)	26.5	73.5	100.0
모름/무응답	(4)	25.0	75.0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65)	21.2	78.8	100.0
200만원-400만원	(268)	29.1	70.9	100.0
400만원-600만원	(253)	29.2	70.8	100.0
600만원 이상	(189)	27.0	73.0	100.0
모름/무응답	(125)	18.4	81.6	100.0
가족 중 치매 환자				
있다	(121)	40.5	59.5	100.0
없다	(879)	24.1	75.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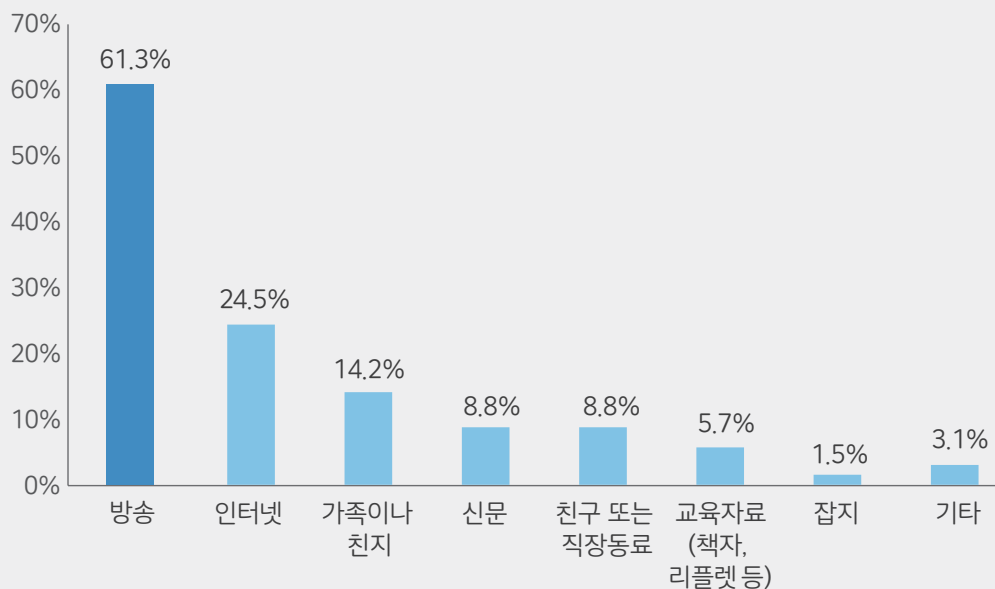
2) 초로기 치매 관련 정보 접촉 경로

문5-1] 접하신 적이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입니까?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 초로기 치매 관련 정보 접촉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중, 접촉 경로로 ‘방송’을 꼽은 응답자의 비율이 61.3%로 가장 높음.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24.5%)’, 신문(14.2%) 등의 순임.

<그림 8> 초로기 치매 관련 정보 접촉 경로(복수응답)

(n=261)





응답자 특성별

- 방송을 통해 초로기 치매 관련 정보를 접했다는 응답 비율은 여성(64.6%), 50대(75.0%), 학생/주부/은퇴/무직/기타(69.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초로기 치매 관련 정보 접촉 경로가 인터넷이라는 응답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고, 남성(31.0%), 40대(34.3%), 미혼(36.5%), 관리/전문/사무직(38.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12> 초로기 치매 관련 정보 접촉 경로(복수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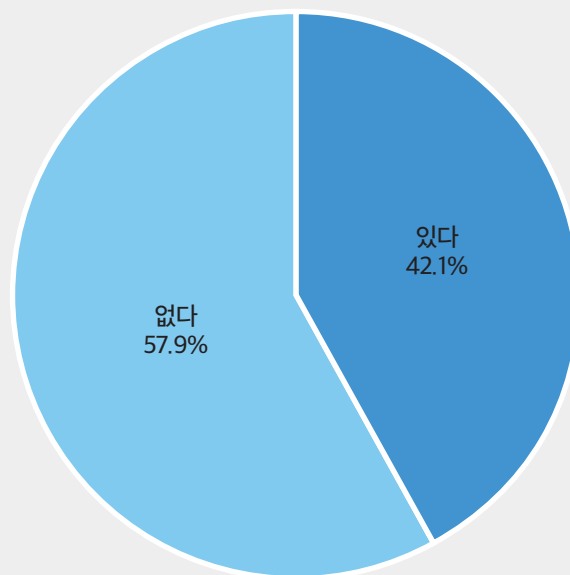
Base=초로기 치매 관련 정보 접촉 경험자	사례수 (명)	방송	인터넷	신문	교육자료 (책자, 리플렛등)	친구 또는 직장동료	가족이나 친지	잡지	기타
전체	(261)	61.3	24.5	14.2	8.8	8.8	5.7	1.5	3.1
성별									
남성	(100)	56.0	31.0	17.0	8.0	9.0	5.0	2.0	2.0
여성	(161)	64.6	20.5	12.4	9.3	8.7	6.2	1.2	3.7
연령									
19-29세	(30)	43.3	33.3	6.7	10.0	20.0	6.7	0.0	0.0
30대	(39)	59.0	30.8	7.7	10.3	5.1	0.0	0.0	7.7
40대	(67)	55.2	34.3	11.9	9.0	4.5	4.5	0.0	3.0
50대	(64)	75.0	21.9	20.3	7.8	3.1	6.3	1.6	1.6
60세 이상	(61)	63.9	8.2	18.0	8.2	16.4	9.8	4.9	3.3
혼인상태									
미혼	(63)	54.0	36.5	7.9	7.9	9.5	4.8	0.0	4.8
유배우	(186)	62.4	21.5	16.1	9.7	9.1	5.9	2.2	2.7
이혼/별거/사별	(12)	83.3	8.3	16.7	0.0	0.0	8.3	0.0	0.0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2)	63.6	0.0	4.5	0.0	27.3	18.2	0.0	4.5
고등학교 졸업	(82)	67.1	17.1	12.2	11.0	6.1	8.5	2.4	3.7
대학교 졸업 이상	(156)	57.7	32.1	16.7	9.0	7.7	2.6	1.3	2.6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0.0	0.0
직업									
관리/전문/사무직	(104)	54.8	38.5	13.5	6.7	6.7	1.9	0.0	3.8
서비스/생산/기능/노무직	(58)	58.6	12.1	15.5	10.3	12.1	6.9	1.7	3.4
학생/주부/은퇴/무직/ 기타	(98)	69.4	17.3	14.3	10.2	9.2	9.2	3.1	2.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0.0	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5)	60.0	2.9	14.3	11.4	17.1	20.0	0.0	2.9
200만원-400만원	(78)	67.9	26.9	14.1	9.0	5.1	2.6	3.8	3.8
400만원-600만원	(74)	64.9	31.1	16.2	6.8	4.1	1.4	0.0	1.4
600만원 이상	(51)	51.0	29.4	13.7	11.8	9.8	5.9	2.0	3.9
모름/무응답	(23)	52.2	17.4	8.7	4.3	21.7	8.7	0.0	4.3
가족 중 치매 환자									
있다	(49)	57.1	20.4	6.1	8.2	14.3	14.3	2.0	2.0
없다	(212)	62.3	25.5	16.0	9.0	7.5	3.8	1.4	3.3

3) 초로기 치매에 관해 얻고 싶은 정보 유무

문6] 귀하께서는 65세 이하 성인이 걸리는 초로기 치매에 관해 얻고 싶은 정보가 있습니까?

- 초로기 치매에 관해 얻고 싶은 정보가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2.1%이며, '없다'는 응답자는 57.9%임.

<그림 9> 초로기 치매에 관해 얻고 싶은 정보 유무 (n=1,000)





응답자 특성별

- 초로기 치매 관련 정보를 얻고 싶다는 응답 비율은 성별로는 여성이 45.4%로 남성(38.6%)보다 높고,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사무직(50.2%),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는 경우(54.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대별로는 30대(53.2%), 40대(54.6%), 50대(50.8%)에서 19-29세(33.5%)와 60대 이상(23.7%)에 비해 초로기 치매 관련 정보를 얻고 싶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음.
-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초로기 치매 관련 정보를 얻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음.

<표 13> 초로기 치매에 관해 얻고 싶은 정보 유무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1,000)	42.1	57.9	100.0
성별				
남성	(485)	38.6	61.4	100.0
여성	(515)	45.4	54.6	100.0
연령				
19-29세	(188)	33.5	66.5	100.0
30대	(188)	53.2	46.8	100.0
40대	(196)	54.6	45.4	100.0
50대	(183)	50.8	49.2	100.0
60세 이상	(245)	23.7	76.3	100.0
혼인상태				
미혼	(315)	40.3	59.7	100.0
유배우	(622)	44.4	55.6	100.0
이혼/별거/사별	(62)	29.0	71.0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23)	26.8	73.2	100.0
고등학교 졸업	(266)	36.1	63.9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596)	48.8	51.2	100.0
모름/무응답	(15)	6.7	93.3	100.0
직업				
관리/전문/사무직	(412)	50.2	49.8	100.0
서비스/생산/기능/노무직	(214)	47.2	52.8	100.0
학생/주부/은퇴/무직/기타	(370)	30.3	69.7	100.0
모름/무응답	(4)	25.0	75.0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65)	23.0	77.0	100.0
200만원-400만원	(268)	44.0	56.0	100.0
400만원-600만원	(253)	50.2	49.8	100.0
600만원 이상	(189)	55.0	45.0	100.0
모름/무응답	(125)	27.2	72.8	100.0
가족 중 치매 환자				
있다	(121)	54.5	45.5	100.0
없다	(879)	40.4	59.6	100.0

4) 초로기 치매에 관해 알고 싶은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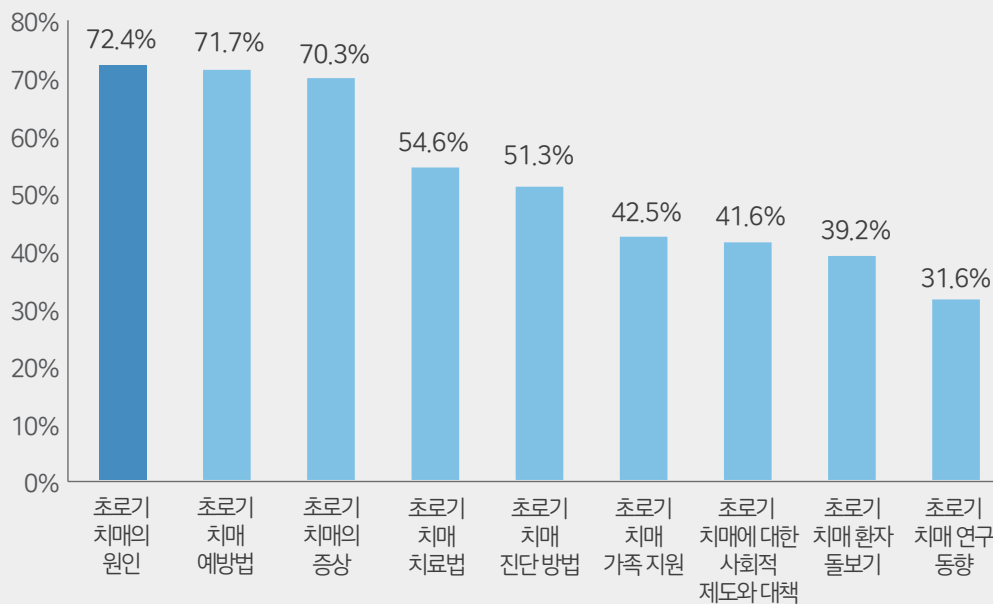
문6-1]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 초로기 치매에 관해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는 응답자 중, 알고 싶은 정보로 ‘초로기 치매의 원인’을 꼽은 응답이 72.4%로 가장 높음. 그 다음으로 ‘초로기 치매 예방법(71.7%)’, ‘초로기 치매의 증상(70.3%)’, ‘초로기 치매 치료법(54.6%)’등의 순임.

<그림 10> 초로기 치매에 관해 알고 싶은 정보(복수응답)

(n=421)





응답자 특성별

- 초로기 치매에 관해 얻고 싶은 정보가 초로기 치매의 원인이라는 응답 비율은 30대(78.0%), 이혼/별거/사별(88.9%),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76.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이 높을수록 초로기 치매 예방법, 초로기 치매의 증상, 초로기 치매 진단 방법, 초로기 치매 가족 지원 등의 정보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경향이 있음.

<표 14> 초로기 치매에 관해 얻고 싶은 정보(복수응답)

(단위 : %)

Base=초로기 치매 관련 정보 습득 희망자	사례수 (명)	초로기 치매의 원인	초로기 치매 예방법	초로기 치매의 증상	초로기 치매 치료법	초로기 치매 진단 방법	초로기 치매 가족 지원	초로기 치매에 대한 사회적 제도와 대책	초로기 치매 환자 돌보기	초로기 치매 연구 동향
전체	(421)	72.4	71.7	70.3	54.6	51.3	42.5	41.6	39.2	31.6
성별										
남성	(187)	73.8	72.7	72.7	56.1	52.9	41.7	41.7	39.6	32.6
여성	(234)	71.4	70.9	68.4	53.4	50.0	43.2	41.5	38.9	30.8
연령										
19-29세	(63)	65.1	61.9	65.1	49.2	42.9	30.2	30.2	28.6	15.9
30대	(100)	78.0	76.0	75.0	64.0	60.0	56.0	54.0	49.0	36.0
40대	(107)	75.7	73.8	72.0	49.5	49.5	43.0	41.1	39.3	33.6
50대	(93)	72.0	72.0	72.0	54.8	58.1	45.2	47.3	44.1	39.8
60세 이상	(58)	65.5	70.7	62.1	53.4	37.9	27.6	24.1	25.9	24.1
혼인상태										
미혼	(127)	71.7	68.5	70.1	55.1	50.4	39.4	38.6	34.6	24.4
유배우	(276)	71.7	73.9	70.7	54.0	52.2	44.2	42.4	40.9	34.1
이혼/별거/사별	(18)	88.9	61.1	66.7	61.1	44.4	38.9	50.0	44.4	44.4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33)	69.7	66.7	60.6	54.5	36.4	33.3	30.3	27.3	27.3
고등학교 졸업	(96)	74.0	70.8	69.8	53.1	52.1	39.6	40.6	37.5	31.3
대학교 졸업 이상	(291)	72.2	72.5	71.5	55.0	52.6	44.3	43.0	40.9	32.0
모름/무응답	(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직업										
관리/전문/사무직	(207)	75.8	71.0	74.4	56.5	56.5	44.4	44.9	40.6	31.9
서비스/생산/기능/노무직	(101)	72.3	73.3	69.3	63.4	48.5	45.5	45.5	44.6	37.6
학생/주부/은퇴/무직/기타	(112)	66.1	71.4	64.3	43.8	44.6	35.7	32.1	32.1	25.9
모름/무응답	(1)	100.0	100.0	0.0	0.0	0.0	100.0	0.0	0.0	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8)	60.5	68.4	55.3	50.0	34.2	26.3	26.3	28.9	23.7
200만원-400만원	(118)	70.3	72.0	65.3	52.5	47.5	42.4	40.7	35.6	28.8
400만원-600만원	(127)	76.4	70.9	80.3	52.8	55.1	42.5	41.7	39.4	34.6
600만원 이상	(104)	73.1	69.2	69.2	60.6	57.7	50.0	50.0	47.1	33.7
모름/무응답	(34)	76.5	85.3	70.6	55.9	50.0	38.2	35.3	38.2	32.4
가족 중 치매 환자										
있다	(66)	72.7	71.2	71.2	48.5	48.5	40.9	47.0	40.9	36.4
없다	(355)	72.4	71.8	70.1	55.8	51.8	42.8	40.6	38.9	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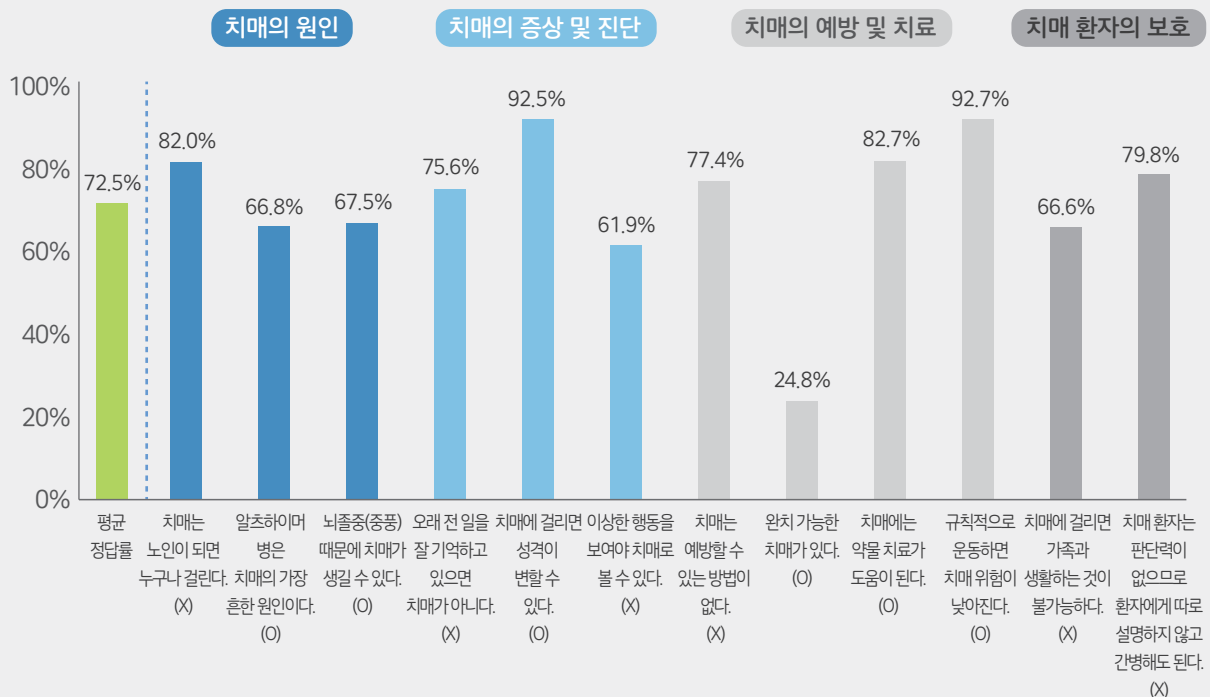
IV. 치매 인식도

문기 다음은 귀하께서 치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부담 없이 아시는 대로 ‘그렇다’ 혹은 ‘아니다’로 답변해 주십시오.

- 치매 인식도 점수는 12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2018년 서울 시민의 치매 인식도 평균 점수는 8.70점임.
- 치매 인식도를 구성하는 12개 항목의 평균 정답률은 72.5%임. 이 가운데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치매 위험이 낮아진다’는 항목에 대한 정답률이 92.7%로 가장 높고, ‘완치 가능한 치매가 있다’는 항목의 정답률이 24.8%로 가장 낮음.

<그림 11> 치매 인식도

(n=1,000)



- ... [치매의 원인] 영역 중 ‘치매는 노인이 되면 누구나 걸린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82.0%가 정답을 기록했으며,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는 66.8%, ‘뇌졸중(중풍) 때문에 치매가 생길 수 있다’는 67.5%의 정답률을 보임.
- ... [치매의 증상 및 진단] 중 ‘오래 전 일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치매가 아니다’라는 항목은 75.6%, ‘치매에 걸리면 성격이 변할 수 있다’는 92.5%, ‘이상한 행동을 보여야 치매로 볼 수 있다’에서 61.9%의 정답률을 보임.
- ... [치매의 예방 및 치료] 중 ‘치매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항목은 77.4%, ‘완치 가능한 치매가 있다’는 24.8%, ‘치매에는 약물치료가 도움이 된다’는 82.7%,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치매 위험이 낮아진다’는 92.7%의 정답률을 보임.
- ... [치매 환자의 보호] 영역에서는 ‘치매에 걸리면 가족과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의 정답률이 66.6%이고, ‘치매환자는 판단력이 없으므로 환자에게 따로 설명하지 않고 간병해도 된다’는 79.8%임.



■ 서울시민의 치매인식도

1) 치매인식도 및 문항정답률

2018년 서울시민의 치매인식도와 문항별 정답률은 다음과 같다(<표 15> 참조).

치매인식도 점수는 12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민의 치매인식도 점수는 평균 8.7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에서 실시한 치매인식도 결과(8.6점/12점 만점)보다 다소 높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문항별 정답률을 구체적으로 보면, 문항정답률의 전체 평균은 72.5%이며 ‘완치 가능한 치매가 있다’라는 문항의 정답률이 24.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상한 행동을 보여야 치매로 볼 수 있다’61.9%,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66.8%, ‘뇌졸중(중풍) 때문에 치매가 생길 수 있다’67.5%, ‘오래 전 일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치매가 아니다’75.6%, ‘치매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77.4%, ‘치매환자는 판단력이 없으므로 환자에게 따로 설명하지 않고 간병해도 된다’79.8%, ‘치매는 노인이 되면 누구나 걸린다’82.0%, ‘치매에는 약물치료가 도움이 된다’82.7%, ‘치매에 걸리면 성격이 변할 수 있다’92.5%,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치매 위험이 낮아진다’92.7% 순으로 정답률이 높았다.

<표 15> 치매 인식도

(n=1,000)

구분		정답자(정답률)
치매의 원인	치매는 노인이 되면 누구나 걸린다.(x)	820 (82.0%)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o)	668 (66.8%)
	뇌졸중(중풍) 때문에 치매가 생길 수 있다.(o)	675 (67.5%)
치매의 증상 및 진단	오래 전 일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치매가 아니다.(x)	756 (75.6%)
	치매에 걸리면 성격이 변할 수 있다.(o)	925 (92.5%)
	이상한 행동을 보여야 치매로 볼 수 있다.(x)	619 (61.9%)
치매의 예방 및 치료	치매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x)	774 (77.4%)
	완치 가능한 치매가 있다.(o)	248 (24.8%)
	치매에는 약물치료가 도움이 된다.(o)	827 (82.7%)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치매 위험이 낮아진다.(o)	927 (92.7%)
치매 환자의 보호	치매에 걸리면 가족과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x)	666 (66.6%)
	치매환자는 판단력이 없으므로 환자에게 따로 설명하지 않고 간병해도 된다.(x)	798 (79.8%)
치매 인식도 총점 : 0점~12점		8.70점 (72.5%)

04. 결론 및 제언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사회구조 및 문화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수준의 치매 노인 조호 노동력을 가정에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 치매 노인의 조호 책임을 더 이상 가족에게만 부담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점차 가족과 이웃, 나아가 국가와 사회 전체가 함께 부담해야 할 문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치매에 대한 관심과 조기 발견에 대한 필요는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교육 및 홍보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급속한 사회구조 변화와 높아지는 치매에 대한 관심 및 요구에 발 맞추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매 교육 및 홍보 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이러한 치매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로서 개인의 치매 인식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으로 보인다.

치매인식도란 치매에 대해서 개인이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질병 자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질병을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한다. 질병 중에서도 특히 치매는 조기 치료가 이루어질 때 질병의 경과를 1-2년 늦출 수 있으며, 이는 중증의 치매 증상 발현으로 인한 입원이나 입소를 줄여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각 개인이 치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즉 치매인식도가 높은 것이 치매 대응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치매에 대한 인식 정도는 개인적인 요인(성별, 연령, 학력 등)과 사회적인 요인(가족 및 사회관계, 대응체계, 사회적인 홍보 및 교육 등)에 의해 변화할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 2012),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한 변화도 중요하지만, 특히 사회적인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현재 개인들의 인식 수준을 살펴보고 치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보를 더 얻고자 하는지, 어떠한 접근법이 활용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치매에 대한 인식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시민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성별, 연령별 인구비율에 비례하도록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하여 서울시민 대상 치매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치매인식도와 치매에 대한 관심 및 정보 요구도 등 대상자들의 치매관련 특성들을 살펴보았으며, 관련 특성에 따른 치매인식도 및 문항정답률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서울시민의 치매 인식을 올바르게 효율적으로 함양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 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여자 515명, 남자 485명으로 여자가 더 많았고, 연령은 60세 이상이 245명으로 가장 많으며, 40대 196명, 30대와 19-29세는 각각 188명, 50대 183명 순이었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596명이고, 고등학교 졸업 266명, 중학교 졸업 이하 123명 순이다. 직업은 관리/전문/사무직이 412명으로 가장 많고 학생/주부/은퇴/무직/기타 370명, 서비스/생산/기능/노무직 214명이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400만원 268명, 400~600만원 253명, 600만원 이상 189명, 200만원 미만 165명 순이며, 가족 중 치매환자여부는 치매환자가 있다 121명, 없다 879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치매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치매에 대한 관심 정도에서 ‘보통이다’가 34.7%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3.5점이었다. 치매에 대한 인지 정도 역시 ‘보통이다’가 47.3%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2.9점이었다. 치매 관련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있다’는 응답이 63.8%였고 주로 방송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있었다(51.9%).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치매 관련 정보를 얻고 싶다는 응답은 51.4%였고, 얻고 싶은 정보 유형으로 ‘치매 예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76.5%), ‘치매의 원인’(49.2%), ‘치매 가족 지원’(48.4%)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초로기 치매 관련 특성으로 초로기 치매 관련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다’는 응답이 73.9%였고 주로 방송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있었다(61.3%).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치매 관련 정보를 얻고 싶다는 응답은 42.1%였고, 얻고 싶은 정보 유형으로 ‘초로기 치매의 원인’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72.4%), ‘초로기 치매 예방법’(71.7%), ‘초로기 치매의 증상’(70.3%)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서울시민의 치매인식도와 문항별 정답률은 다음과 같다. 치매인식도 점수는 총점 12점에 평균 8.70으로 나타났다. 문항정답률은 전체 평균 72.5%이며, ‘완치 가능한 치매가 있다’의 정답률이 24.8%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이상한 행동을 보여야 치매로 볼 수 있다’61.9%,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66.8%, ‘뇌졸중(중풍) 때문에 치매가 생길 수 있다’67.5%, ‘오래 전 일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치매가 아니다’75.6%, ‘치매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77.4%, ‘치매환자는 판단력이 없으므로 환자에게 따로 설명하지 않고 간병해도 된다’79.8%, ‘치매는 노인이 되면 누구나 걸린다’82.0%, ‘치매에는 약물치료가 도움이 된다’82.7%, ‘치매에 걸리면 성격이 변할 수 있다’92.5%,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치매 위험이 낮아진다’92.7% 순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서울시민의 치매인식도 수준은 12점 만점에 평균 8.7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서울시광역치매센터 치매인식도 조사 결과(8.6점/12점)와 비교하였을 때 아주 미약하게 치매인식도가 상승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시민의 치매 인식도는 낮은 인식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문항별로 정답률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는 치매에 대한 지식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치매인식도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식개선사업을 통해 전체적인 치매 인식수준을 향상시키고 치매 지식의 세부 영역별로 정확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치매 관련 정보를 접한 경로를 묻는 문항에서 51.9%가 방송을 통해 접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토대로 TV, 라디오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홍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이 35.4%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므로, 20~30대 젊은층 및 인터넷 활용에 익숙한 시민을 위한 홍보 전략도 함께 수립할 필요가 있다. 반면, 친구 또는 직장동료를 포함한 주변인을 통해 치매 관련 정보를 접하였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사람을 통한 치매 관련 정보의 전파가 아직은 미성숙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휴먼 네트워크의 경우 치매환자 및 가족, 기타 치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치매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유용한 경로이므로 천만시민 기억친구와 같은 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치매관련자를 비롯한 서울 시민을 교육하고 이들에게 치매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심어주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식을 전달하는 매체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 전개와 함께 치매에 보다 친숙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교육 및 홍보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치매 관심 정도 문항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치매에 관심이 있다고 하였고, 상당수의 사람들은 높은 관심 정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다양한 치매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응답자의 76.5%가 치매 예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 하였고, 치매의 원인(49.2%), 치매 가족지원(48.4%) 등에 대한 정보 요구도 상당히 높았다. 문항별 정답률에서는 ‘완치 가능한 치매가 있다’, ‘치매에 걸리면 가족과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상한 행동을 보여야 치매로 볼 수 있다’ 등 정답을 고르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정보가 필요한 정보 요구도가 높은 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낮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 치매 관련 정보가 정확하게 공유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치매 교육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적극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 커리큘럼 작성 시 치매 원인과 치료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완하고, 기타 요구도가 높았던 주제들,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영역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교육 참여도를 높이고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성별, 연령, 학력, 가족 중 치매환자 유무등에 따라 얻고자

하는 정보의 유형 및 치매인식도 점수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맞춤형 교육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다.

후속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할 수 있다. 상당수의 응답자가 치매 정보 습득 경로를 묻는 문항에서 병원, 보건소 등과 함께 치매안심센터를 정보 습득의 경로로 이용하였다고 기타의견으로 응답하였다. 이것은 서울시에 소재하는 각급 보건소를 비롯하여 25개 자치구치매안심센터가 서울시민과 밀착하여 치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치매안심센터의 이용경험, 이용양태, 안심센터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 경험 유무, 교육 프로그램의 만족 수준에 따라서 서울시민의 치매인식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여 치매관련 프로그램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면 향후 서울시치매관리사업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 돌이킬 수 없는 질환 ‘치매’... 4년 새 국민 의료비 7,630억원 급증.

보도자료(인터넷).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 April

[cited 2018 Novemeber 3].

https://www.hira.or.kr/cms/inform/02/1345775_27116.html

김기웅 등 (2012) 치매 노인 실태 조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상우, 이채정 (2014) 치매관리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김정아, 고자경, 문숙남 (2006) 중년 성인의 치매지식과 관련요인, 성인간호학회지, 18(2), 293-303.

문정희 (2014) 치매에 대한 장 노년층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 (2012) 2012년 치매유병률조사.

보건복지부 (2015)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2016~2020) 수립 연구. 연구보고서.

세종시: 보건복지부. 2015 11월.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553-01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2014) 2014년 서울시치매관리사업 등록 치매노인 관리현황 조사.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2015). 2015년 서울시민 대상 치매 인식도 조사, 2015.

이은자, 조미경 (2017) 지역주민의 치매 인식도, 치매 태도 및 우울에 대한 조사연구, 동서간호학연구지, 23(2), 180-189

이영희, 우선미, 김옥란, 이수연, 임혜빈 (2009) 저소득층 중년여성의 치매 지식, 태도, 자기효능과 예방 행위와의 관계연구, 성인간호학회지, 21(6).

장윤정(2014) 치매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에 관한 한일 비교: 노인입소시설 케어워커를 대상으로. 한국노년학회, 34(2), 333-348.

중앙치매센터 (2017) 중앙치매센터 연차보고서 2017.

통계청 (2016)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2/6/index.board?bmode=read&aSeq=357935

부록 1. 설문지

서울시민 대상 치매 인식도 조사 설문지

주관기관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리서치 면접원 000입니다.
-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와 한국리서치에서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위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치매 인식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자료는 서울시 치매 관리 사업의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조사 결과는 연구의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모든 응답 및 개인 신상 관련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니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란?**
 - 서울시의 치매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응답자 선정 질문

선문1.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1. 종로구 | 2. 중구 | 3. 용산구 |
| 4. 성동구 | 5. 광진구 | 6. 동대문구 |
| 7. 중랑구 | 8. 성북구 | 9. 강북구 |
| 10. 도봉구 | 11. 노원구 | 12. 은평구 |
| 13. 서대문구 | 14. 마포구 | 15. 양천구 |
| 16. 강서구 | 17. 구로구 | 18. 금천구 |
| 19. 영등포구 | 20. 동작구 | 21. 관악구 |
| 22. 서초구 | 23. 강남구 | 24. 송파구 |
| 25. 강동구 | 26. 서울시 이외 지역 -> 설문종료 | |

선문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선문3.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몇 세입니까?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세 -> 만 19세 미만 설문종료



치매 관심 및 정보 요구도

문1. 귀하께서는 치매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1. 매우 관심이 많다
2. 관심이 많다
3. 보통이다
4. 관심이 없다
5. 전혀 관심이 없다

문2. 귀하께서는 치매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 알고 있다
2. 잘 알고 있다
3. 보통이다
4. 잘 모른다
5. 전혀 모른다

문3. 귀하께서는 치매와 관련한 정보를 접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문4

문3-1. 접하신 적이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입니까?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1. 신문
2. 방송
3. 인터넷
4. 잡지
5. 교육자료(책자, 리플렛 등)
6. 가족이나 친지
7. 친구 또는 직장동료
8. 기타()

문4. 귀하께서는 치매에 관해 얻고 싶은 정보가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문5

문4-1. 얻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1. 치매의 원인
2. 치매의 증상
2. 치매 예방법
3. 치매 진단 방법
4. 치매 치료법
5. 치매 연구 동향
6. 치매에 대한 사회적 제도와 대책
7. 치매 환자 돌보기
8. 치매 가족 지원
9. 기타()



초로기 치매 관심 및 정보 요구도

문5. 귀하께서는 65세 이하 성인이 걸리는 초로기 치매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문6

문5-1. 접하신 적이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입니까?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1. 신문
2. 방송
3. 인터넷
4. 잡지
5. 교육자료(책자, 리플렛 등)
6. 가족이나 친지
7. 친구 또는 직장동료
8. 기타()

문6. 귀하께서는 65세 이하 성인이 걸리는 초로기 치매에 관해 얻고 싶은 정보가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문7

문6-1. 얻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1. 초로기 치매의 원인
2. 초로기 치매의 증상
2. 초로기 치매 예방법
3. 초로기 치매 진단 방법
4. 초로기 치매 치료법
5. 초로기 치매 연구 동향
6. 초로기 치매에 대한 사회적 제도와 대책
7. 초로기 치매 환자 돌보기
8. 초로기 치매 가족 지원
9. 기타()



치매 인식도

문7. 다음은 귀하께서 치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부담 없이 아시는 대로 ‘그렇다’ 혹은 ‘아니다’로 답변해 주십시오.

구 분	그렇다	아니다
1. 치매는 노인이 되면 누구나 걸린다.	1	2
2.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1	2
3. 뇌졸중(중풍) 때문에 치매가 생길 수 있다.	1	2
4. 치매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1	2
5. 오래 전 일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치매가 아니다.	1	2
6. 치매에 걸리면 성격이 변할 수 있다.	1	2
7. 이상한 행동을 보여야 치매로 볼 수 있다.	1	2
8. 완치 가능한 치매가 있다.	1	2
9. 치매에는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된다.	1	2
10.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치매 위험이 낮아진다.	1	2
11. 치매에 걸리면 가족과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1	2
12. 치매 환자는 판단력이 없으므로 환자에게 따로 설명하지 않고 간병해도 된다.	1	2



배경 질문

배문1. 귀하의 혼인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미혼
2. 유배우
3. 이혼/별거/사별

배문2.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대학교 졸업(전문대학 포함)
5. 대학원 졸업 이상

배문3. 귀하의 직업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10. 주부
11. 학생
12. 은퇴/무직
13. 기타()

배문4. 귀하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근로 및 사업 소득, 자산 소득, 공적·사전이전소득, 사회보험수혜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8. 7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9.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10. 1,500만원 이상

배문5. 귀하의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습니까?

치매 때문에 현재 함께 살지 않게 된 경우도 포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1. 있다
2. 없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발 행 처 :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 발 행 인 : 이동영
 - 발 행 일 : 2018년 11월
 - 연 구 자 : 이동영, 김선화, 김지연, 권상욱
 - 편집위원 : 나백주, 박경옥, 김선심, 백현자

copyright© 2018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